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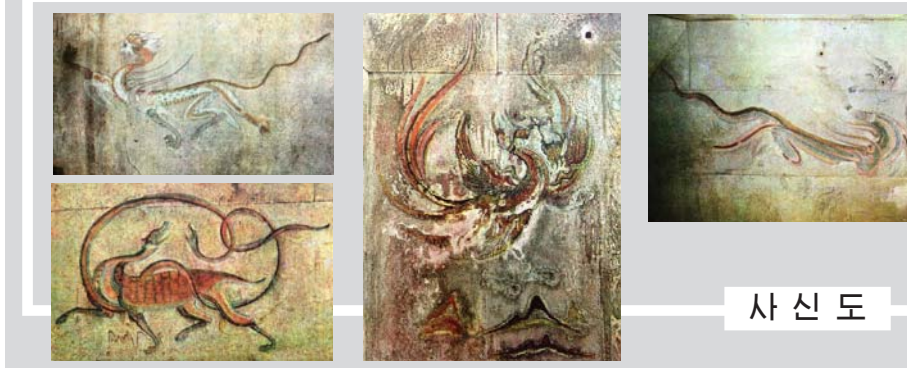
고구려시기의 미술작품들 (2)

김경희회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있는 홀에 들어섰다. 그중에서도 강서구역의 덕흥리무덤에 그려진 벽화 《활쏘기경계》가 눈길을 끌었다. 출현을 기다리는 기마선수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앞뒤로 목표물을 겨누고 활을 쏘는 선수들, 엄격한 표정을 하고있는 심판원과 기록원 등 벽화의 그림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적극 장려해온 고구려의 상무기풍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상수준이 높아 지금까지 발굴된 무덤벽화의 인물풍속화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김경희회사는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시종군들을 거느리고 교예를 구경하면서 행차하는 장면을 가리켰다. 모자를 쓰고 끝동과 깃에 옥색천을 두른 황도색두루마기를 입은 주인공과 색동치마에 검은 저고리를 받쳐입은 여주인공의 모습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로운 선들로 그려져 있어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자니미관 편편》



사신도

2월의 절기들에는 립춘과 우수가 있다. 립춘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를 일러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립춘을 맞으며 집안팎을 깨끗이 손질하고 그해의 소원이나 새봄을 맞이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벽장같은데 붙이곤 했으며 움과, 신강채 등으로 봄의 향취가 풍기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2월의 절기와 민속

립춘시기 농사에 해당하는 풍습에서 특색있는 것은 소와 관련한 의식이 많이 행해졌던 것이다. 지방에 따라 나무로 만든 소를 마을로 끌고다니기도 하고 나무소에 농쟁기를 메워 밭가는 시늉도 하였으며 부림소를 리용하여 얼마간의 밭을 갈기도 하였다. 우수의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

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북부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온도가 0℃이상으로 올라가며 눈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석이 물을 웅덩이마다에 잡아두고 농사차비를 서둘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웃놀이, 바출당기, 널뛰기, 연피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하곤 하였다. 올해의 립춘은 2월 4일, 우수는 2월 19일이다. 본사기자

풍부한 우리 말

《구불다》와 《취다》

곧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굽어졌다 는 것이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차이는 꽤 있다. 구불다는 곧바로 뺨어나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굽어졌

러졌거나 뜻이나 마음을 굽힌다는 뜻이다. ① 자가 취다. ② 《청성골대장같은 사람은 그저 인정으로 휘어야 하느니라.》 본사기자

조선의 국가상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해방후 공화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새 조국을 건설하던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성되었다. 국가는 해방 나라를 가사와 선물로써 형성한 송가형식의 노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해방후 공화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새 조국을 건설하던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성되었다. 국가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와 전통, 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열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담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역사의 지평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국가의 장중한 선율은 변형하는 강국의 기상을 안고 누리를 진감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작가 박세영과 작곡가 김원준이 창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와 전통, 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열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담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역사의 지평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국가의 장중한 선율은 변형하는 강국의 기상을 안고 누리를 진감하고있다. 본사기자

영화배우 문예봉

1930년대 초 서울의 영화관들에서는 무성영화 《임자없는 나무배》가 성황리에 상영되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역을 맡은 여배우가 바로 문예봉이었다. 그 후 첫 무성영화 《춘향전》에서 춘향역을 맡게 된 그녀는 순결하면서도 외유내강한 춘향의 성격과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문예봉은 여태로 고대하던 우리 선조들이 즐겨온 민속명절중에는 정월대보름도 있다. 정월대보름명절은 음력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14일은 《작은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큰보름》이라고 하였다. 음력 1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에 들어와 첫달에 맞이하는 보름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날에 우리 선조들은 새해의 행운과 풍년들을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하여 날가리대세우기, 달맞이, 들불놀이, 과일나무시집보내기, 풍알뜨기 등 의례행사를 행하였다. 들불놀이는 해불을 켜고 들뜰에 나가 목은 잔디를 태워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농사에 해를 미치는 벌레를 죽이는데 유익한 놀이였다. 날가리대세우기, 과일나무시집보내기, 풍알뜨기 풍습들도 새해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풍년이 들게 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지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즐겨온 민속명절중에는 정월대보름도 있다. 정월대보름명절은 음력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14일은 《작은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큰보름》이라고 하였다. 음력 1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에 들어와 첫달에 맞이하는 보름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날에 우리 선조들은 새해의 행운과 풍년들을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하여 날가리대세우기, 달맞이, 들불놀이, 과일나무시집보내기, 풍알뜨기 등 의례행사를 행하였다. 들불놀이는 해불을 켜고 들뜰에 나가 목은 잔디를 태워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농사에 해를 미치는 벌레를 죽이는데 유익한 놀이였다. 날가리대세우기, 과일나무시집보내기, 풍알뜨기 풍습들도 새해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풍년이 들게 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지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본사기자



참으로 《임자없는 나무배》에 올라 방황하던 너매우가 닳을 내린 곳은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이었고 그 품에서 그의 생은 보석과도 같이 빛날 수 있었다. 본사기자

전역기념물

마양현 족제비

족제비과의 한종인 마양현 족제비는 무산군에 있는 마양수지주변의 울창한 수림으로부터 수성천기슭과 깊은 골짜기에서 살고있다. 몸길이가 13~26cm, 꼬리길이 2~8cm이며 육식동물들 가운데서 제일 작다. 몸은 짧은 털이 나있는데 여름에는 더 짧다. 겨울과 여름에 털색이 변한다. 겨울털은 온몸이 흰색이고 꼬리끝만 갈색이며 여름털은 배와 네다리의 안쪽, 귀끝과 꼬리끝이 희고 나머지 부분은 갈색이다. 겨울털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평지로부터 해발높이 3500m의 높은 산지대에 이르기까지의 산림에서 흔히 큰 나무의 뿌리 밑, 바위 밑, 돌각담 등에서 다른 동물들이 쓰다 버린 낡은 굴을 쓰고 산다. 주로 쥐류를 많이 잡아먹으며 작은 새, 새알, 개구리, 뱀, 곤충 등도 먹는다. 한배에 4~7마리(최고 9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를 많이 잡아먹으며 털가죽의 질이 좋아 리용 가치가 아주 높다. 마양현족제비는 마리가 적은 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되고 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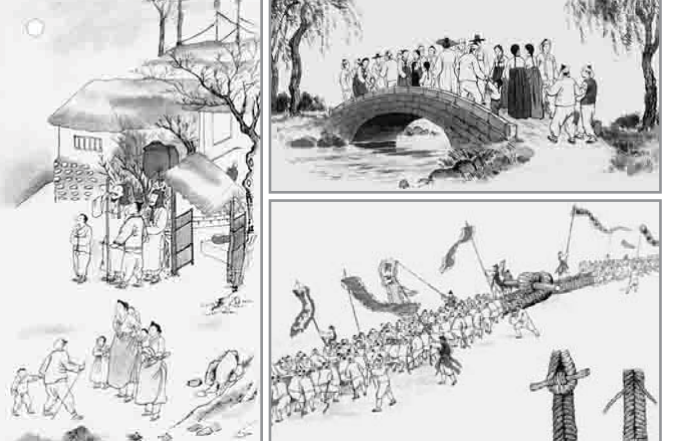
본사기자

대보름날 저녁에 사람들은 마을의 뒤동산에 올라가 솟아오르는 달을 구경하였는데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랐고 그해 농사의 흥풍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배추일이나 김으로 밥을 싸서 먹는 북쌈, 9가지 나물을 말려워두었다가 대보름날에 물에 불구어 데쳐서 무쳐 먹는 마른나물만찬도 정월대보름날의 별식들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에 연피우기, 바람개비놀이, 바출당기, 놀타기놀이, 다리밟기, 수레싸움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하며 하루를 즐기었다. 올해의 정월대보름은 2월 5일이다. 본사기자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정월대보름풍습

정월대보름날에 오곡밥을 지어먹는 풍습은 새해에도 오곡이 잘되어 풍년이 들며 또 오



민족특색 메밀묵

메밀묵은 메밀농사를 풀인 다음 식혀서 영키게 한 음식이다. 메밀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기름, 레몬산, 여러가지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효소 등이 들어있어 몸을 보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열을 떨구는 작용을 한다. 또한 독을 풀며 소변이 잘 나가고 설사를 멈춘다. 메밀묵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메밀쌀 500g일 때 양념장 20g을 준비한다. 메밀쌀은 물에 불구었다가 물을 두고



속담과 유래

어느날 독지계를 작대기로 뺨쳐놓고 앉은 한 사람이 장사를 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공리를 하였다. 그 공리란 독을 판 돈으로 닭알을 사서 사는 집에 부락하여 깨운다는 것이었다. 병아리가 깨어나면 절반씩 나누어주고 또 아는 집에 맡겨서 기르고 큰 닭이 되면 또 알을 받아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 닭이 수십마리가 되면 그 닭들을 팔아 돼지새끼 알들을 사서 그 수를 늘려 다음에는 암소를 사서 그것을 밀천으로 논밭을 사고 기와집을 짓고 장가

사화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2)

고향마을에 갔든 전설만 보아도 로인들의 깊은 씬속을 알 수가 있다. 옛적에 마을에 살던 힘장수가 단번에 밭을 갈아엎을 마음으로 영각이 우렁찬 황소 두마리에 연장을 매었다고 한다. 그런데 몸집이 실하고 기운이 어스비슷한 황소들은 시꺼먼 눈알을 디룩거리고 코를 헝헝 불며 맞붙질만 할 뿐 밭을 갈지 못하고있었다. 힘장수는 화가 머리끝부터 치밀어올랐다. 그렇다고 무슨 용맹은 수는 없었다. 이때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있었다. 초라한 행색의 늙은이었다. 《이보라구, 젊은이 생애를 쓰고있구만.》 길가던 나그네가 제갈같이 나 같았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요왔지만 힘장수는 상대가 늙은이임을 가려보고 공손히 대꾸했다. 《그럼 로인님에겐 무슨 수가 있소이까?》 《음과 음, 양과 양은 서로 밀치고 밀리하려는게 정해진 리치인데 어찌 황소들끼리 짝을 무어 부릴수 있으리오.》 늙은 나그네는 이웃의 밭머리에 매여있는 암소를 가리켰다. 《한번 저 암소를 끌어다가 황소와 쌍을 지어보게. 그럼 생각대로 밭을 폭폭 뒤집어엎을 수 있을거네.》 힘장수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지만 두고보자는 마을에서 늙은이가 시키는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황소와 암소가 사이좋게 힘을 합쳐 연장을 쟁쟁 끄는 것이었다.》 힘장수는 놀라 공손하게 말했다. 《로인님이 사시는 고장에선 이렇게 밭을 가는 모양이지요?》 《엔젤, 나도 처음이네. 젊은이가 우격다짐으로 황소끼리 짝을 지어 연장을 메우려하는 걸 보고서야 그런 생각이 났을뿐이네.》 그때로부터 암수 한쌍의 부림소로 밭을 갈게 되었다고 한다. 어찌 그런리까. 옛적에 이 마을에서 부자지간이 생장하는 부역에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재간좋은 석공이어서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든든한 성벽이 솟속 키돋음을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보배라고 칭찬하자 그것을 시기한자가 있었으니 그는 생장하는 일을 맡은 판리였다. 판리는 석공을 불러 하루씩, 하루밤중으로 성으로 나드는 흥예문(웃머리가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된 문)을 그것도 아버지와 단 둘이서 쌓으라고 호통쳤다. 석공은 땅을 치며 죽을수 없겠다고 한탄만 하였다. 그도그렇것이 마차들이 마



《아버님(우물집)머느리 같은 너자는 온 동네앞에 끌어내어 혼쌀을 안겨야 할 줄로 아나이다.》 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저어졌다. 《애들이, (우물집)머느리도 나쁘지만 보다는 그 집 아들너저이 더 틀러먹었다. 부부한몸이라고 인사 사람이 나 빠지는 건 다 사내너저의 탓이야. 하여튼 그들이 제정신이 들도록 무슨 마련은 있어야 했다.》 허나 나무토막도 없고 늙은 아버지와 단 둘이서 어떻게 판리의 령을 따를수 있단 말인가. 그때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잡아 이끌었다. 《애야, 하늘이 무너진대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늙은 아버지는 먼저 흥예문의 락벽을 쌓은 다음 그 안에 무지개모양으로 둥글게 흙을 다져넣게 하였다. 그다음 그우에다 성들을 지어다 척척 쌓았다. 성문을 다 만든 다음 그안에 다져넣었던 흙을 퍼내니 더할나위없는 훌륭한 흥예문이 되었다. 이처럼 세상만사 풍상고초를 다 겪어본 늙은이들의 궁냥은 끝이 없이 깊고 넓은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고향마을에 몇몇의 덜덜먹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늙은 부모들을 박대하고있으니 이거야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니고 뭐냐. 세상만물만 한번 뒹가다 세월과 더불어 고사아 없어지고 젊은이도 나이들어 죽기마련이다. 왜 이런 리치를 알려고도 않는지... 안해는 분이 나서 입을 열

로 알려져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오늘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시집은 첫날부터 어머니는 눈먼 할머니를 끔찍이 보살폈는데 저녁이면 계승으로 이부자리를 퍼드리고 아침이면 깨어울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신세벽에 일어난 어머니는 밤을 짓고 뒤이어 방을 나선 아버지는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밖으로 나갔다. 한참 지나 배가 불췌해진